

보도시점 (전매체) 배포즉시

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 평균 400명 신청, 개시 25일 만에 신청자 1만 명 돌파

- 지난 3월 26일 ‘모두의 창업 플랫폼’이 열린 이후, 일 평균 400명의 아이디어 도전이 이어지며 개시 25일 차인 4.19.(일) 18시 기준 신청자가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
 - 특히 전체 신청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이 약 63%를 차지하였으며, 비수도권 소재 보육 기관에도 약 43%의 신청이 집중되었습니다.
 - * ‘아이디어 접수 현황’ 내 지역별 신청 현황 통계 신규 공개
 - 또한 플랫폼 누적 접속자 수는 약 60만 명에 달하며, 아직 아이디어를 작성하고 있는 도전자들도 1만 명을 넘었습니다.
- 1만 번째 도전자는 대학생 때 창업 동아리도 참여하였으나, 그 후 접었던 창업의 꿈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자 모두의 창업에 신청하였으며,
 - 이번 도전을 통해 한국인들이 해외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덜어주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.
- 아울러 ‘모두의 창업’이 막연한 꿈을 꾸는 국민 모두에게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응원의 말을 전하였으며,
 - 모두의 창업 공식 SNS(인스타그램·페이스북·유튜브)에서는 1만 명 달성을 기념한 전국민 응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향후 중소기업부부는 ‘모두의 창업 프로젝트’가 도전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면밀하게 기획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창업벤처혁신실	책임자	과 장	강현정 (044-204-7950)
	청년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이현일 (044-204-7651)